

無노조, 無상급단체, 無과반노조 기관부터 선도기관 지정한다?! 비열한 기재부! 명분없는 입피제! 투쟁으로 박살내자!

■ 임금피크제? 고위 공무원부터 해라!



임금피크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탈하여 자본가들의 배를 채우는 정책일 뿐이지, 청년세대의 고용정책과는 상관이 없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정원을 일률적으로 삭감해가며 청년들의 일자리를 없앴던 새누리 정권이 이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신규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 했던 사람들이 청년 일자리 걱정한다니 개가 웃을 일이다.

오늘(23일) 세종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기관 임금담당자들을 불러모아 2차 임금피크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우리 연맹을 비롯한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조합간부들이 참여하여 정책의 부당성과 입피제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벌였다. 무노조, 무상급단체, 복수노조로 과반노조가 없는 기관부터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정부, 일말의 양심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투쟁으로 박살내야 한다.

■ 수자원공사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수자원공사노조는 오늘(23일) 본사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노동시장개혁저지, 2단계 가짜 정상화저지를 위한 한국노총 총파업 투표에 총력결집, 전원 찬성의 결의를 높였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가짜 정상화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동참을 요청하였으며 수자원공사노조 이영우 위원장은 가짜 정상화 저지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결의 23일 현재, 연맹 19개 노조 총파업투표 돌입

노동시장구조개혁저지, 2차 가짜정상화저지를 위한 한국노총 총파업 투표를 위한 연맹 회원조합의 결의가 드높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노조가 찬반투표공고를 하고 30일 총파업투표를 진행한다. 이로서 우리 연맹은 선거로 인해 참여가 어려운 조직을 비롯한 6개 노조를 제외한 19개 노조 3만6천명, 88%가 총파업 투표에 결합한다.